-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 -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2026. 11.

울산광역시의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Ⅰ. **출장개요** ····· 1

Ⅱ. **출장일정** ····· 2

Ⅲ. **출장내용**

1.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 3

2. 글로벌 링크 비즈니스 데이 ····· 4

3.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방문 ····· 5

4. 현지기업 SMC 방문 ····· 6

5. 베트남 안장성 방문 ····· 7

Ⅳ. **주요성과** ····· 10

Ⅴ. **시사점** ····· 12

Ⅵ. **총 평** ····· 13

Ⅶ. **의원 개별 보고서** ····· 15

[붙임1] 언론보도 현황 ····· 22

[붙임2] 참여자 명단 ····· 27

[붙임3]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현황 ····· 28

[붙임4] 베트남 현지기업 SMC 현황 ····· 29

-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 -

공 무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관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주요 산업단지와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 시장 동향과 산업 여건을 파악하고자 함

○ 현지 기업과의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장개요

○ 기　　간 : 10. 27.(화) ~ 10. 31.(토)(5일간)

○ 장　　소 : 베트남(호치민, 안장성 등)

○ 참석인원 : 1명(시의원)

※ 총 공무국외출장 인원 : 21명(시의회 1, 북구청 8, 북구의회 3, 기타 9)

○ 주요내용

- 베트남 현지 바이어 미팅 지원 및 바이어 초청 네트워킹
-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방문
- 베트남 현지기업 SMC(건설용 철강 전문기업) 방문 등

□ 출장자 명단 및 역할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시의원	이주언	기업지원, 국제교류추진, 향후 정책방향 모색

※ 울산 북구청(산업혁신과) 주관「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관련 북구청 대표단 베트남 방문 동행 요청에 따른 국외 출장

Ⅱ 출장일정

일자	도시명	시간	세 부 일 정	비 고
10.27. (화)	울 산 김 해 호치민	05:30 15:00 18:00	• **울산(05:30) → 김해(07:00) → 호치민(14:35)** •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KOTRA) – 베트남 현지시장 정보 공유, 현지 규제 인·허가 가이드, 질의응답 • 사전 간담회 – 세부일정 공유, 북구청–유관기관–참여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착(1시간) 유관기관 참여기업 북구청 등
10.28. (수)	호치민, 안장성	07:00~ 11:30 12:30~ 14:30 14:30~ 15:30 15:30~ 17:30 18:00~ 20:00	• 호치민 → 동쑤엔동(안장성) • 동쑤옌동(안장성) → 짜스 짬나무 숲 • 생태보존구역(짜스 짬나무 숲) 방문 • 짜스 짬나무 숲 → 락자동(안장성) • 환영만찬	버스 이동 버스 이동 관광국, 산림관리 위원회 버스 이동
10.29. (목)	안장성, 호치민	09:00~ 11:00 11:00~ 11:20 12:20~ 19:00	• 공식회의 ※ 장소 : 안장성인민위원회 • 안장성 인민위원회 → 락자동 • 락자동(안장성) → 호찌민	 버스 이동 버스 이동
10.30. (금)	호치민	08:00 20:00	• (기업) VSPN(싱가포르계 산업단지) 방문 • (북구청, ㈜켐프) 현지기업 SMC 방문 – 차담회, ㈜켐프–SMC 계약 및 MOA 체결식 • 호치민 공항 이동	
10.31. (토)	호치민 김 해 울 산	01:10 12:00	• 호치민(01:10) → 김해(09:00) → 울산(12:00)	연착(1시간)

Ⅲ 출장내용

1.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26. 10. 27.(화) 15:00~16:00

○ 장　　소 :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세미나실

○ 발 표 자 : 장혜인 과장(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시장조사/동향 담당 주재원)

○ 특강내용

- 베트남 시장의 경제·교역 동향과 외국인 투자 흐름을 살펴보고,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확대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의 업종과 진출 사례를 공유하며, 전자·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의 현지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소비자 특성 및 사업 환경 차이를 소개하고, 제품의 용도와 고객군에 따라 진출 지역과 유통 방식을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장에서는 제품 경쟁력과 함께 가격, 납기, 기술 지원, 사후 대응 능력이 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이어 상담 시 구체적인 공급 조건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 이미지는 강점으로 평가하되, 현지 경쟁업체의 가격, 관세·규제, 인력 및 물류 여건 등은 진출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임.
- 코트라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등 지원 기능을 소개하고, 참가기업이 현장 상담 결과를 후속 연락과 견적 협의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함.

□ 특강사진





2. 글로벌 링크 비즈니스 데이

□ 방문개요

○ 일　　시 : 2026. 10. 29.(목) 18:30~21:00

○ 장　　소 : 베트남 호치민 Bay Hotel 만찬장

○ 참석인원 : 총 35여 명(한국 측 참가자 20명, 베트남 바이어 15여 명)

○ 주요내용

- 한국-베트남 기업인 교류 등
- MOU 체결(기업-바이어 조인식)
  · 네모엘텍-DUHAL(10만 달러) 네모엘텍-VAN PHAT DAT GROUP(80만 달러) NYT-NITECH(10만 달러), 켐프-MITEK(100만 달러)

□ 행사사진



3.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방문

○ 일시/장소 : 2026. 10. 30.(금) 08:00~ /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 방문인원 : 10여 명(울산테크노파크, 참여기업 3개사 등)

○ 간담회 내용

- VSIP 관계자로부터 산업단지의 개발 배경, 입주 산업군, 기반시설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베트남 현지 생산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안내
- 베트남과 싱가포르 측이 공동으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소개받고, 싱가포르 측 재원과 운영 경험을 통한 안정적 운영 관리 안내
- 레고를 비롯한 대형 기업의 입주 사례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 운영과 연관 협력업체의 입주 사례 안내
- 베트남에서는 토지가 국가가 대표해 관리하는 전 국민 소유에 해당하므로, 입주기업은 영구적인 토지 소유가 아니라 사용권과 임대기간 등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하는 점 등 세부 협력 내용에 대한 안내
- VSIP 측은 직접적인 현금성 인센티브보다 입주 절차 안내와 유관기관 연결 등 간접적인 지원 가능성 안내

□ 방문사진



4. 현지기업 SMC 방문

○ 일시/장소 : 2026. 10. 30.(금) 08:00~ / 현지기업 SMC

○ 방문인원 : 15여 명(북구 관계자, 울산테크노파크, ㈜켐프)

○ 주요내용

- ㈜켐프-SMC 계약 및 MOA 체결식
- 차담회, SMC 공장 투어

○ 간담회 내용

- ㈜켐프와 베트남 철강기업 SMC는 2025년 수출상담회에서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양사는 이번 방문 기간에 58만 5천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계약과 운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함
- 합작법인 'SMC-KEMP'(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함
- 베트남 철강·금속 구조물 분야에서 표면처리, 방청 기술, 설비 및 관련 솔루션의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임

□ 방문사진



5. 베트남 안장성 방문

□ 방문개요

○ 기　　간 : 2026. 10. 28.(수) ~ 10. 29.(목), 1박 2일

○ 장　　소 : 베트남 안장성(짜스 짬나무 숲, 안장성 인민위원회)

○ 인　　원 : 북구청장 외 10명

○ 안장성 대표단 : 안장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Lê Văn Phước) 외 7명*

* 대표단 소속: 안장성 인민위원히 사무국, 관광국, 문화체육국, 투자·무역·관광 진흥센터, 롱쑤엔동 인민위원회, 하띠엔동 인민위원회

○ 주요내용

- 생태분야 : 생태관광지 짜스 짬나무 숲 방문
- 향후 교류·협력 방향 및 확대, 발전방안 논의 등

□ 방문성과

○ **구체적인 교류 내용 협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협력】

- 안장성 산림관리위원회의 설명을 통해 안장성이 급수 펌프장과 수문 등 시설을 갖추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지역의 소중한 자연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음.
- 양측은 울산숲 조성 경험과 짜스 짬나무 숲의 보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음.

【짜스 짬나무 숲】

· 1983년 조성된 하우강 서쪽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림
· 총 845ha의 핵심 보호 구역과 이를 둘러싼 1,050ha 규모의 완충 구역
· 짜스 짬나무 숲의 전체 지정 면적 845ha는 보존 목적과 이용 강도에 따라 3개 핵심 분구로 분할 관리

【해양관광 분야 교류 필요성 공유】

- **(해양관광 교류 기회 모색)** 강동관광단지 내 '강동롯데리조트' 준공(7월 예정) 및 베트남 안장성 푸꾸옥 APEC 정상회의 개최(11월 예정) 시기가 같은 2027년으로 해양관광 분야의 공동 협력 모멘텀 형성
- **(안장성 측 교류 의사 확인)** 안장성 역시 강동관광단지와 푸꾸옥 간의 유사성에 공감하며, 양 지역 관광 담당 부서 간 현장 방문 및 관광개발·운영 경험 공유 추진 희망

- **(관광객 기반 협력 강화)** 푸꾸옥 방문(2026년 1~9월) 외국인 관광객 약 194만명 중 한국인이 61만 9천명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실질적인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 교류 추진의 필요성 상호 확인

【안장성 측의 '5대 중점 협력 방향' 제안】

- **경제·무역·투자 분야**
  · 안장성과 울산시·투자기관·한국기업 연결
  · 가공·제조업, 부품소재산업, 첨단농업, 청정에너지, 물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분야의 투자기회 등
- **농업·수산업 및 무역 분야**
  ·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 전반에 걸쳐 경험 교류와 기술이전, 기업 간 연계 강화
- **교육·훈련 및 인적 자원 분야**
  · 안장성의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과 북구 및 울산지역기관간의 연계 강화
  → 학생 등 교류 등 우수 인재 양성
- **관광·문화 및 주민 교류 분야**
  · 관광지 홍보 강화, 관광상품 개발 경험 교류 추진 → 문화·체육 교류행사 개최
- **지방정부 간 협력 분야**
  · 롱쑤옌동과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 여건 마련
  · 양측 대표단 교류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 경험 공유, 지역주민 교류프로그램 개발 등

□ 방문사진

○ 짜스 짬나무 숲('26. 10. 28.)







○ 환영만찬('26. 10. 28.)

2026.10.28.(수) 환영만찬





○ 공식회의('26. 10. 29.)









Ⅳ 주요성과

□ 주요실적 : 상담 26건, MOU 2건(210만 달러 규모)

○ 관내 중소기업, 현지기업과 수출계약 체결 : 58만 5천 달러 규모

- ㈜켐프, 베트남 철강기업 SMC와 친환경 아연도금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켐프-SMC **합작법인 설립 MOA**(합의각서) **체결** : 현지생산 거점 확보 추진

※ ㈜켐프-SMC : 2025년 북구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MOU체결, 이후 TF구성·상호방문 등을 통해 내용 구체화 지원

○ 참여기업 4개사, 베트남 현지기업과 수출MOU 체결 : 총8건, 210만 달러

- 후속 협의를 통한 현지시장 진출 및 수출 실현 기반 마련

연번	참여기업	베트남 현지기업	MOU체결 규모	비 고
계	4개사	**8개사**	**210만 3,600달러**	
1	㈜엔와이티	NITECH	10만 달러	소형 ESS · 중소형 풍력발전 등 분산형 친환경 전원 솔루션 분야
		PV Charger	10만 달러	
2	㈜네모엘텍	Duhal	10만 달러	양자점 기반 조명(QD LED)과 태양광 도로 표지병 분야
		Van Phat Dat Group	80만 달러	
3	바라이노베이션	Thinksmart	1,200달러	수용성 3D프린팅 · 금형 분야
		Print 3D Studio	1,200달러	
		SEACAD TECHNOLOGIES	1,200달러	
4	㈜켐 프	MITEK	100만 달러	전기아연도금 · 표면처리 분야

○ 업체별 실적 세부내역

No	기업체	바이어	미팅날짜				실적($,USD) 집계			
							MOU		계약추진액	상담액
			월	일	요일	시간	횟수	금액		
Grand Total							**8**	**2,103,600**	**5,747,200**	**10,983,000**
NYT Total							**2**	**200,000**	**360,000**	**1,200,000**
1	1. NYT	NITECH	10	28	수	09:00	1	100,000	100,000	300,000
2		PV Charger	10	28	수	11:00	1	100,000	30,000	100,000
3		Co Khi Duy Khanh (DK)	10	28	수	14:00			50,000	150,000
4		AMANA Energy	10	28	수	16:00				
5		Duhal	10	29	목	11:00				
6		PROFOR	10	29	목	14:00			50,000	300,000
7		KATO Precision	10	29	목	16:00			130,000	350,000
NEMO L TEC Total							**2**	**900,000**	**900,000**	**1,325,000**
1	2. NEMO L TEC (네모엘텍)	Thanh Thanh Solar Energy	10	28	수	09:00				
2		Basic Light (Co Ban)	10	28	수	11:00			0	5,000
3		BK System	10	28	수	14:00				5,000
4		KIM SANG	10	28	수	16:00			0	5,000
5		Duhal	10	29	목	09:00	1	100,000	100,000	300,000
6		Xay Lap Dien Quang Huy	10	29	목	11:00				
7		Luxen Vietnam Lighting	10	29	목	14:00		-	-	10,000
8		Van Phat Dat Group	10	29	목	16:00	1	800,000	800,000	1,000,000
Barah Innovation Total							**3**	**3,600**	**487,200**	**1,458,000**
1	Barah Innovation (바라이노베이션	Thinksmart	10	28	수	09:00	1	1,200	240,000	768,000
2		May in 3D Cong nghiep	10	28	수	11:00				
3		NUMATEC VN	10	28	수	14:00				
4		Print 3D Studio	10	28	수	16:00	1	1,200	7,200	18,000
5		SEACAD Technologies	10	29	목	09:00	1	1,200	240,000	672,000
6		IDM Precision	10	29	목	11:00				
7		Binh Minh Plastics	10	29	목	14:00				
8		Nhua Thanh Ky	10	29	목	16:00				
KEMP Total							**1**	**1,000,000**	**4,000,000**	**7,000,000**
1	4. KEMP (켐프)	Cong Nghiep Dinh Long	10	28	수	09:00				
2		NHH Viet Nam	10	28	수	11:00				
3		Phuong Hoai Tinh (취소)	10	28	수	14:00				
4		Xi Ma Dien Phan Viet Y	10	28	수	14:00				
5		Xi Ma Thanh Luan	10	29	목	09:00			3,000,000	1,500,000
6		MITEK	10	29	목	11:00	1	1,000,000	1,000,000	2,500,000
7		PEB Steel	10	29	목	14:00				3,000,000
8		Xi Ma Danh Thanh Dat	10	29	목	16:00				

Ⅴ 시사점

□ 현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아세안(ASEAN) 진출의 핵심 교두보

-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및 산업재 시장 모두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 향후 인접 동남아 국가로 확장하기 위한 역내 거점(Hub)으로 활용해야 함.

○ 한류 및 한국산 제품 높은 신뢰도

- 소비재, 스마트 팩토리 등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가 매우 높음.

□ 수출지원사업 운영상의 주요 성과

○ 사전 분석 및 협의를 통한 맞춤형 바이어 상담 추진

- 사업 참여 전 기업의 수출 품목과 기술 경쟁력, 현지 바이어의 수요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하고, 상담 전 양측의 관심 분야와 협력 가능성, 요구사항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상담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성과 제고

○ 지자체·유관기관·용역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시장개척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공신력 있는 기관의 주관으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현지 유력 바이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유도

□ 자매결연도시 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 **해양관광 분야 협력 기반 마련**

- 2027년 강동롯데리조트 준공과 푸꾸옥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관광개발·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강동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확대 필요

○ **경제·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확인**

- 안장성이 제안한 가공·제조업, 부품소재산업 등 5대 중점 협력 방향을 바탕으로 울산시·북구 기업과의 경제교류 및 투자기회 발굴 필요

○ **생태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짜스 짬나무 숲의 산림·수자원 관리 사례와 북구 울산숲 조성 경험을 공유하여 생태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주요행사 연계 국제교류 활성화**

- 2027년 북구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상호 대표단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교육 등 분야별 협력 강화 필요

Ⅵ 총 평

[총평]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을 통한 울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해외 판로개척 성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및 기업 간 교류행사를 통해 총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울산 북구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확인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 및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실질적 수출성과 창출)** ㈜켐프와 베트남 철강기업 SMC 간 58만 5천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2025년 수출상담회에서 시작된 협력이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발전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 확인

○ **(글로벌 산업협력 기반 확대)**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VSIP) 및 현지기업 방문을 통해 글로벌 제조기업의 생산시설과 산업단지 운영체계, 현지 공급망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을 파악하고,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등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 생산거점 확보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모색

○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강화)** 울산 북구청, 울산테크노파크, 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부족과 현지 거래처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춘 바이어 매칭과 수출상담 지원 등 지속적인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확인

○ **(지속가능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계약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진행상황에 대한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울산시·북구 간 수출지원사업 연계 및 실질적인 수출이행 실적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 마련)** 베트남 안장성 방문을 통해 해양관광·경제산업·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강동관광단지와 푸꾸옥 간 관광교류 및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향후 주요행사와 연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자매결연 관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Ⅶ 의원 개별 보고서

작성자 : 이주언 의원	
주요활동 내용	○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세미나(KOTRA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의 경제·교역 동향과 현지 투자환경,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 전략 등을 파악함. 특히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등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울산과 북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과 가격·품질·납기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함. ○ 울산 북구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및 글로벌 링크 비즈니스 데이 북구 소재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현지 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기업 간 교류행사에 동행하여 해외 판로 개척 성과를 확인함. 행사에서는 총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거래처를 확대할 가능성을 확인함. 다만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협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VSIP) 방문** 베트남의 산업단지 개발·운영체계와 글로벌 제조기업의 입주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방식 등을 파악함. 특히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과 기업지원체계, 입주기업 간 공급망 형성 사례를 통해 울산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및 부품 공급망 진출 가능성을 확인함. 아울러 해외 진출이 지역 제조업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울산 내 핵심 생산·연구개발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함. ○ **베트남 현지기업 SMC 방문 및 ㈜켐프 수출계약 체결** 북구 소재 ㈜켐프와 베트남 철강기업 SMC 간 58만 5천 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계약 및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 성과를 확인함. 이는 2025년 수출상담회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이 실제 계약으로 발전한 사례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이 기술수출과 현지 사업화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줌. 향후 유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베트남 안장성 방문 및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확대** 북구청 대표단과 함께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10. 28.~10. 29.)하여 짜스 짬나무 숲의 생태환경 보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안장성 인민위원회 관계자와 경제·관광·환경 등 분야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함.

	특히 북구의 폐선부지 활용 울산숲 조성 사례와 안장성의 수문·급수시설을 활용한 산림 보전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함. 2027년 강동롯데리조트 준공과 푸꾸옥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 지역 간 해양관광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광 담당 부서 간 현장 방문 및 관광개발·운영 경험 공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아울러 안장성 측에서 경제·무역·투자, 농수산업, 교육·인적자원, 관광·문화, 지방정부 간 협력 등 5대 중점 협력 방향을 제안하였음
정책제언	**1. 울산시·북구 공동 해외 판로개척 지원체계 구축 필요** 울산 북구는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등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와 전문인력, 현지 거래처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번 출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의 협력이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함. **첫째,** 울산시와 북구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울산시는 해외시장 조사와 통상지원사업 연계를, 북구는 유망기업 발굴과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울산테크노파크·KOTRA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별 수출품목과 기술 수준에 적합한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연계 지원해야 함.

셋째,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등 북구 주력산업과 베트남 현지 제조업 수요를 연계한 맞춤형 시장개척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2. 수출 업무협약의 실제 계약 전환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이번 출장에서 총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켐프는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수출계약을 성사시킴. 이는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의 성과가 일회성 상담보다 지속적인 후속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첫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에 대해 출장 종료 후 3개월·6개월·12개월 단위로 계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담 이후 견적 협의·제품검증·계약체결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둘째, 업무협약과 실제 수출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이행액과 신규 거래처 확보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함.

셋째, 울산시의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인증, 전문통역, 계약 법률자문 및 수출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기업 매출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3. 북구 제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기술사업화 지원 필요

울산 북구의 제조업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요함. 특히 이번 ㈜켐프 사례는 지역기업의 표면처리·방청기술 등 제조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사업화될 가능성을 보여줌.

첫째, 자동차부품·금속가공·산업설비 등 북구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생산품목과 기술 경쟁력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둘째, 완제품과 부품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제조공정 개선기술 및 기술서비스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화를 촉진해야 함.

셋째,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현지 법률·회계 자문 및 투자위험 검토 등을 지원하되, 핵심기술과 연구개발 기능은 울산에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4. 해외 산업단지 사례를 활용한 울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베트남 VSIP는 산업용지와 기반시설 공급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주절차 지원과 관계기관 연계, 글로벌 제조기업과 협력업체의 집적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제조업 중심도시인 울산의 산업단지 운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첫째, 울산의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과 기업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기술개발·판로개척·투자유치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둘째, 자동차부품·기계·금속가공 등 연관 업종 간 협력과 공동 기술개발, 국내외 공급망 연계를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집적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환경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지원하되, 지역 생산시설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울산의 산업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5. 해외 판로개척 사업의 성과관리 및 시의회 정책점검 강화

해외 판로개척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만큼, 단순한 상담실적이나 업무협약 체결 건수를 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울산시와 북구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실제 수출계약액, 수출이행액,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지원기업의 매출·고용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둘째,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추진실적과 기업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와 지원 필요성을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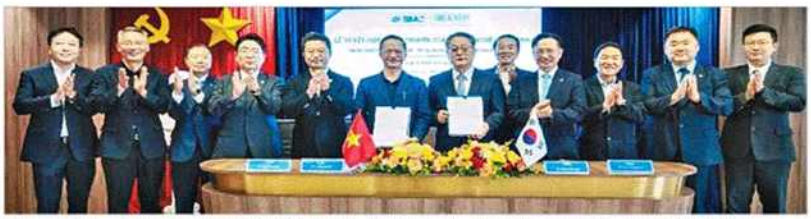
	셋째,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시·구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6. 울산 주력산업과 연계한 경제·산업 교류 확대** 안장성은 경제·무역·투자를 비롯한 5대 중점 협력 방향을 제안하며 울산시와 투자기관, 지역기업 간 연계에 관심을 표명함. 이를 활용하여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를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울산시와 북구의 기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안장성의 투자·무역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함. **둘째,** 자동차부품·소재·가공·제조업 등 울산 주력산업과 안장성의 산업수요를 연계하여 현지 투자기회 및 해외 판로개척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수산물 가공·유통, 청정에너지, 물류 등 안장성이 제안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교류와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함.

붙임 1 언론보도 현황

울산신문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013면 사람들

북구 中企 4곳 베트남서 210만달러 MOU 성과

8개사와 수출·현지 법인 설립 등



울산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구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참여 기업인 ㈜켐프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의 모습. 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한 '2026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구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엔와이티 △㈜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켐프 등 4개 기업은 현지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 8개 기업과 모두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켐프는 수출 협약은 물론 현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합의각서까지 체결하며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켐프는 친환경 세라믹 아연도금 기술과 표면처리 용액으로 현지 전기아연도금·표면처리 업체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1개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켐프는 지난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58만5,000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은 물론이고, 운전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SMC-KEMP'(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각각 체결하면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기대감을 높였다.

엄시윤기자 usw4746@

연합뉴스

울산 북구 중소기업 4곳, 베트남서 210만달러 규모 업무협약

송고 2026-11-02 16:37

합작법인 설립 합의각서 체결 기업도…북구 "맞춤형 지원 지속"



베트남서 수출박람회 연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앞줄 가운데)과 중소기업 관계자들
[울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4곳이 베트남 호찌민 수출상담회에서 총 210만 달러 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북구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7~30일 호찌민에서 엔와이티, 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켐프 등 4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참여 기업들은 소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자점 기반 조명, 3차원(3D) 프린팅용 수지, 친환경 아연도금 기술 등을 선보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켐프는 지난해 상담회에서 200만달러 규모 수출 업무협약을 맺은 베트남 철강기업 SMC와 58만 5천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

켐프와 SMC는 운전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 합의각서도 체결했다.

북구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상담회에 앞서 참여 기업의 시장조사와 영문 홍보자료 제작, 현지 구매업체 발굴·연계를 지원했다.

앞으로 추가 상담 등을 통해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경상일보

HOME 사회 울산

울산 북구, 지역 중소기업 베트남 호찌민 판로 개척 지원 성과

A 이형종 기자 | ⓒ 승인 2026.11.02 12:15



▲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한 2026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한 2026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구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주)엔와이티, (주)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주)켐프 4개 기업은 현지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 8개 기업과 모두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주)켐프는 수출 협약은 물론 현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합의각서까지 체결하며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주)엔와이티는 소형 ESS·중소형 풍력발전 등 분산형 친환경 전원 솔루션으로 전력기자재·전기차 충전 분야 기업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2개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주)네모엘텍은 양자점 기반 조명(QD LED)과 태양광 도로 표지병으로 조명 제조·유통 기업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2개사와 9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바라이노베이션은 수용성 3D프린팅 코어 수지로 3D프린팅·금형 분야 기업 8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8개사와 3천600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주)켐프는 친환경 세라믹 아연도금 기술과 표면처리 용액으로 현지 전기아연도금·표면처리 업체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1개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주)켐프는 지난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58만5000 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은 물론이고, 운전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SMC-KEMP'(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각각 체결하면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기대감을 높였다.

북구와 울산테크노파크가 함께 마련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이동권 북구청장과 시·구의원도 함께 참여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지원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난해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협력이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북구와 테크노파크는 이번 수출상담회에 앞서 참여기업별 사전 시장조사와 영문 홍보자료 제작, 바이어 발굴·매칭 등을 지원했다. 북구는 이번 수출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바이어 연계와 추가 수출상담을 지원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지방 > 지방일반

울산북구기업, 越 수출길 활짝...210만불 협약

등록 2026.11.02 15:13:02



[울산=뉴시스] 울산 북구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어 8개 현지기업과 모두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호찌민 한 호텔에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한 모습. (사진=북구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 지역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상담회에서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거뒀다.

북구는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엔와이티, ㈜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켐프 등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상담회 기간 현지 기업 25개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8개사와 총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업별로는 ㈜엔와이티가 20만 달러, ㈜네모엘텍이 90만 달러, 바라이노베이션이 3600달러 규모의 MOU를 각각 체결했다.

㈜켐프는 친환경 세라믹 아연도금 기술과 표면처리 용액으로 현지 업체와 상담을 진행해 1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특히 ㈜켐프는 지난해 MOU를 체결한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58만5000달러 규모의 실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SMC-KEMP'(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체결해 현지 생산 거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북구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상담회에 앞서 기업별 시장조사와 영문 홍보자료 제작,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등을 지원했다.

북구는 이번 상담회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바이어 연계와 추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난해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협력이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울산매일TV

HOME 뉴스 사회

울산 북구 중기 4곳, 베트남서 210만 달러 수출 MOU

김귀임 기자 | 승인 2026.11.02 18:14 | 10면

북구-울산테크노파크, 호찌민서 수출상담회
지역 중소기업 4개사 참여해 해외 판로 확대
켐프, 현지 SMC와 58만5000달러 수출계약
기술이전·합작법인 설립 합의로 협력 강화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한 2026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북구 제공

울산 북구는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한 2026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북구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엔와이티, ㈜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켐프 4개 기업은 현지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상담을 진행, 8개 기업과 모두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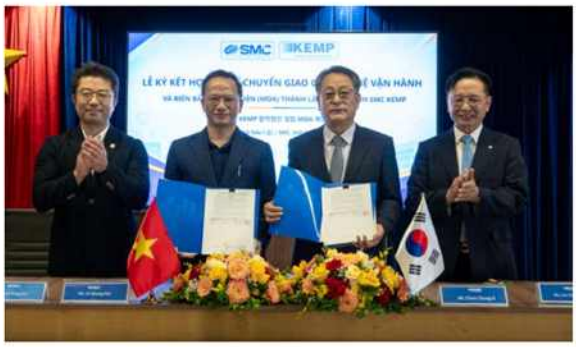
특히 ㈜켐프는 수출 협약은 물론 현지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합의각서까지 체결하며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엔와이티는 소형 ESS·중소형 풍력발전 등 분산형 친환경 전원 솔루션으로 전력기자재·전기차 충전분야 기업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2개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네모엘텍은 양자점 기반 조명(QD LED)과 태양광 도로 표지병으로 조명 제조·유통 기업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2개사와 9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바라이노베이션은 수용성 3D프린팅 코어 수지로 3D프린팅·금형 분야 기업 8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8개사와 3,600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켐프는 친환경 세라믹 아연도금 기술과 표면처리 용액으로 현지 전기아연도금·표면처리 업체 6개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그 중 1개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켐프는 10월 30일 베트남 철강기업 SMC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북구 제공

특히 ㈜켐프는 지난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58만5,000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은 물론이고, 운전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SMC-KEMP'(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각각 체결했다.

북구와 울산테크노파크가 함께 마련한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이동권 북구청장과 시·구의원도 함께 참여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지원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난해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협력이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제일일보

HOME > 종합

북구 中企 4곳, 베트남서 210만 달러 규모 MOU

문정호 | 승인 2026.11.02 21:13

현지기업 25개사와 수출상담 진행後 8곳과 체결… 북구 "기업 해외진출 지원 결실"



울산시 북구는 지난달 29일 호찌민 한 호텔에서 현지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하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울산 북구

울산시 북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지역 중소기업 4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열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주)엔와이티, (주)네모엘텍, 바라이노베이션, (주)켐프 등 4개 기업은 현지 기업 25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해 8개 기업과 모두 21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켐프는 지난해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한 베트남 철강 전문기업 SMC와 58만5000 달러 규모의 실제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운전 기술이전 계약, 합작법인 'SMC-KEMP' (가칭)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각각 체결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 켐프는 이와 별개로 친환경 세라믹 아연도금 기술과 표면처리 용액으로 현지 업체 6개사와 상담해 1개사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주)엔와이티는 소형 ESS·중소형 풍력발전 등 분산형 친환경 전원 솔루션으로 6개사와 상담해 2개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MOU를 맺었다. (주)네모엘텍은 양자점 기반 조명(QD LED)과 태양광 도로 표지병으로 6개사와 상담해 2개사와 9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바라이노베이션은 수용성 3D프린팅 코어 수지로 8개사와 상담해 8개사와 3천600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이동권 북구청장과 시·구의원도 참여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지원했다. 북구와 테크노파크는 상담회에 앞서 참여기업별 사전 시장조사와 영문 홍보자료 제작, 바이어 발굴·매칭 등을 지원했다. 북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바이어 연계와 추가 수출상담을 지원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지난해 지원사업에서 시작된 협력이 기술이전 계약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이어진 것은 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정호 기자



울산시 북구는 29일 베트남 안장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울산 북구

북구-베트남 안장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생태자원 보전·관광자원 활용 등 생태·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 모색

울산시 북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해 우호관계를 다지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방문단은 29일 안장성 인민위원회와 공식회의를 열고 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자매결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북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7월 열리는 북구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는 안장성 대표단을 초청한다는 방침이다.

방문단은 앞서 28일 짜스 쩜나무숲 생태보존구역을 찾아 생태자원 보전·관리와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모색했다.

북구는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롱쑤옌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이어왔다. 이후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장성으로 자매결연 관계를 승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정호 기자

포커스

북구, 베트남 안장성과 우호관계 돈독히 다져

이동권 구청장 등 방문단 11명 방문
생태·관광 등 교류협력 방안 모색



울산 북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해 우호관계를 다지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북구 제공

울산 북구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해 우호관계를 다지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방문단은 29일 안장성 인민위원회와의 공식회의에서 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했다.

양 지역은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갈 계획이다.

또 내년 7월 북구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 안장성 대표단을 초청해 우호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방문단은 앞서 28일 짜스 쩜나무숲 생태보존구역을 찾아 생태자원의 보전·관리와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롱쑤옌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이어왔다. 이후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장성으로 자매결연 관계를 승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귀림 기자 kiu2665@iusm.co.kr



북구, 자매결연 베트남 안장성 방문 정책 공유·교류협력 논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방문단은 29일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해 안전성 인민위원회와 공식회의에서 양 지역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 북구 제공

울산광역매일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002면 종합

북구,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안장성 방문



이동권 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방문단이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했다. (사진=울산 북구 제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울산 북구가 28일부터 29일까지 자매결연도시인 베트남 안장성을 방문해 우호 관계를 다지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방문단은 지난 29일 안장성 인민위원회와의 공식 회의를 통해 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 북구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 안장성 대표단을 초청해 우호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방문단은 앞서 지난 28일 짜스 짬나무숲 생태보존 구역을 찾아 생태자원의 보전·관리와 관광자원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아 롱쑤옌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2025년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장성으로 자매결연 관계를 승계해 협력 중이다.

정종식 기자

붙임 2 참여자 명단

연 번	소속(직위)	성 명	성별	임무(역할)
1	구 청 장	이동권	남	단 장
2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남	방문 총괄
3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팀장	정진호	남	기업 지원 관련 실무 (현지 일정 총괄 관리 등)
4	경제일자리과	김주영	여	기업 지원 관련 실무 지원 (현지 일정 지원, 보고서)
5	총무과장	장연화	여	국제교류 실무 (국제교류 일정 총괄 관리 등)
6	총 무 과 총무팀장	박은실	여	국제교류 실무 지원 (국제교류 보고서)
7	총 무 과	정재철	남	구청장 수행
8	미디어정보과	이선우	남	대내외 홍보 관련 실무 (홍보 등 보도자료)
9	북구의회 부 의 장	최병협	남	기업 지원, 국제교류 추진, 향후 정책방향 모색
10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남	기업 지원, 국제교류 추진, 향후 정책방향 모색
11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주언	남	기업 지원, 국제교류 추진, 향후 정책방향 모색
12	의회사무과	모선홍	남	기업 지원, 국제교류 추진, 향후 정책방향 모색 (의원 수행)
13	울산테크노파크	윤지현	남	바이어 미팅 등 프로그램 운영 총괄
14	울산테크노파크	전상민	남	참가기업 일일활동 및 상담일지 성과 취합
15	㈜켐 프	전창일	남	베트남 바이어와 1:1 상담, 세미나 및 베트남 기업과의 간담회 참여 등
16	㈜켐 프	류성택	남	
17	㈜바라 이노베이션	이선기	남	
18	㈜바라 이노베이션	이유진	여	
19	㈜엔와이티	이진원	남	
20	㈜네모엘텍	김덕수	남	
21	㈜네모엘텍	정나영	여	

붙임 3 VSIP(싱가포르계 산업공단) 현황

□ VSIP(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

주요특징	베트남 최초 VSIP 산업단지, 외국기업 밀집
관련산업	전기전자, 소비재, 물류, 제조업
방문목적	○ 베트남 VSIP 산업단지 방문을 통해 베트남 남부 제조벨트의 산업 인프라, 생산환경 및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생산거점 구축 가능성 검토 ○ VSIP 내 입주한 글로벌 제조기업 및 한국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공급망 구조, 부품 조달 체계 및 생산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고 글로벌 제조 공급망 진입 기회 확보 ○ VSIP 운영기관 및 현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절차, 공장 임대 조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감면 제도 등 현지 투자 관련 실질 정보 확보 가능 ○ 참여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기반으로 현지 제조기업 · 유통기업 · 바이어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여 베트남 시장 내 수요 검증 및 수출 · 사업화 연계 가능성 확대
관련사진	   

붙임 4 베트남 현지기업 SMC 현황

□ 베트남 현지기업 SMC 현황

주력사업	**건설용 철강 분야**[철강 제조 · 가공 · 무역 · 유통(국내외)]
사업영역	○ 건설 투자 프로젝트 시공(토목, 산업, 교통, 관개 사업), 주택 컨설팅 설계 및 인테리어/외부 장식 프로젝트 사업 수행 ○ 민간, 산업, 교통, 수자원 공사 건설 및 설치 등 수행 ○ 기계 가공(금속 처리 및 코팅), 건설, 전자,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철강 시트 제품 생산
기업정보	○ **연혁** – (1988년) 'Construction Material Store No.1' 설립 – (이후) 사명 변경 및 조직 개편을 거쳐 건설자재 유통 및 철강 전문 사업으로 영역 확충 ※ 베트남 전국에 15개 지방 영업소가 있으며, 베트남 대부분의 건설사에 건설용 철강 공급 ○ **종업원 수** : 약 606명('24년 기준) ○ **연 매출** : 약 5,000억 원('24년 기준) ○ 삼성물산과 합작을 통해(2022~) 삼성전자 전자부품용 철판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 언론에 보도됨
사 진	 